

강주희

2014년 1월 3일, 20시 18분.

오늘은 평소보다 머리가 아프다. 왜지? 어제 늦게 자서 그런가. 어제는 오전근무여서 일찍 끝났을 텐데 말이다.
아. 컴퓨터만 몇 시간째 계속 하고 있었구나..

[거대 달팽이 발견]

거대 메기, 거대 지렁이, 거대 오징어, 거대 해파리, 거대 호박....
지금껏 살면서 수많은 거대 생물 발견 뉴스를 봐왔다. 거대 생물들은 항상 이슈가 되곤 했었다. 이번에는 달팽이 차렌가 보다. 클릭해 보니 정말 거대 달팽이가 맞긴 맞다. 보통 새끼손가락 마디만 한 달팽이가 어른 손바닥을 덮을 정도의 크기다. 달팽이가 지금 이 손바닥 크기면...워우.

저녁 교대근무에 나가기 위해 샤워를 했다. 교대가 하루에 네 번이면 좀 좋지 하필 왜 세 번이람. 하루를 세 조각으로 나누는 건 너무 애매하다. 밤에 출근하면 종일 밤을 새다가 아침에 퇴근해야 한다. 덕분에 발전소에서 일하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집 앞 푸른약국과 편의점의 단골이 되었고, 피로회복제와 에너지 음료의 최고 매출액을 올려주게 되었다. 말이야 그렇지, 나와 같은 부서인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어쩔 땐 회사에서 다량으로 피로회복제를 사오기도 한다. 탕비실에는 언제나 진한 커피향이 가득하다. 너무 지칠 땐 가끔씩 친구들을 데려와 이런 시골 마을 말고 근처 해수욕장이나 해운대로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하루쯤 일을 켜고 시내로 놀러 나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어쩐지. 일이 일인걸.

‘뭐? 취직했다고? 진짜가?’

“그래! 그렇다니까. 면접 볼 때 진짜 심장 떨렸다 아이가. 이제 나도 백수탈출이다.”

‘기지배 자랑하는 것 좀 봐라. 좋겠다 가시나야. 근데 뭐꼬. 발전소라고? 원자력발전소면 부산 완전 촌구석에 박혀 있지 않나?’

“나도 그게 좀 걱정이다. 근처에 무슨 근무자 사택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걸 공짜로 주는지 아님 내가 집을 또 사야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그게 무슨 대수겠나. 원전이면 한수원 소속 아이가. 나도 나름 대기업 직원이다.”

‘하이고. 좋겠다 가시나야. 나는 언제 취직하노. 취직도 취직이지만 이제 결혼도 슬슬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게 뭘 끌이고.. 죽겠다야.’

“맞다. 요점은 그거다. 우린 결혼 언제 하겠노. 수진이는 벌써 코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도 수진이처럼 신혼여행 좀 가고 싶다. 일 하다가 돈 좀 모이면 슬슬 결혼하고 집도 사고 해야지. 너는 언제쯤 다 하겠나~”

첫 취직 후 친구와의 통화가 새록새록 기억난다. 통화를 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지만 돈만 모였지 결혼은 커녕 연애도 못 했다. 친구들은 시내에 살면서 벌써 여럿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애도 있다. 처음엔 친구 결혼식도 괜찮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내 생애 신부의 부케를 받을 날이 오다니.’ 라며 내 자신에게 뿌듯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 버리자 이제는 결혼식이라면 축의금 걱정밖에 드는 생각이 없다. 하긴, 이런 촌구석에서 남자는 무슨 남자. 돈이 좀 더 넉넉하게 모이면 시내에 집을 구하고 이직하거나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얼른 결혼부터 해야겠다. 결혼...

20시 37분.

위이이잉-

조용한 방 안, 드라이기 소리만이 집 안을 울린다. 거울 속의 나는 멍한 표정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다. 뜨거운 바람에 날려 눈가를 때리는 끝이 갈라진 진한 고동색 머리카락은 내 신경을 건드린다.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걸까.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곤해지고 짜증을 내게 된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만 5년을 살았으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만도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그

런 것 같다. 결혼을 못해서 그런가? 역시 모든 것의 근원은 결혼이다.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하면 무조건 결혼 이야기뿐이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결혼 그까짓 거 나중에 해도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 뻔하다. 심지어 먼저 결혼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전만큼 자주 하질 않는다. 두고 보라지. 잘생긴 남자도 좋지만 반드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그들의 콧대를 눌러 주고 말 것이다. 어쩌다 또 결혼 생각을 하게 됐는지..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나서부터, 야간근무가 있는 날이면 왠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왠지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았다. 열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은 뒤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잠금을 해제했지만 막상 휴대폰으로도 할 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좀있다 출근ㅠㅠ 가기싫다]

멍둥.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온다. 이렇게 답장이 빨리 온 걸 보니 수진이도 결혼만 하고 여지간히 할 일이 없었나 보다.

[불쌍타.]

게다가 이렇게 짧은 단답이라니. 수진이도 요즘 여지간히 힘든가 보다.

[근데 나 지금 서울이다 결혼식 왔다]

[결혼식? 서울??? 누구 결혼인데?]

[지긋지긋한 시누이 결혼]

간만에 수진이도 게 댔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 생활 힘들다고 징징대던 수진이의 모습은 이제 전보다 덜할 듯하다.

[이제 간다!ㅠㅠ 안녕]
[잘가라]

20시 54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집 현관문을 나섰다. 도어락은 띠로리. 하며 잠겼다. 계단을 타며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복장을 점검했다. 연청색 와이셔츠와 검은 면바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코트 한 장. 아까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소한’ 이라고 떠올랐던데 세상에나, 소한은 일 년 중 제일 추운 때란다. 일 년 중 제일 추운 때에 이렇게 허술한 복장으로 집을 나서다니. 예상대로 아파트의 자동문이 열리니 엄청난 추위가 나를 휩쓸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더 거세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입고 올 걸, 하며 잠시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나 귀찮음에 곧 가던 길을 걸었다.

집에서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넉넉잡아 약 20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걷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다. 직원사택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발전소와 제일 가까운 1단지에 살고 있어서 편의점도 가깝고 발전소와의 거리도 멀지 않다. 발전소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이 아파트는 1단지에서 3단지까지 작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4층짜리라 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 4층짜리 아파트를 세 단지나 지을 수 있다니. 내 회사지만 한국전력도 참 대단하다.

출근하는 길, 언제나처럼 편의점에 들렀다. 보통 야간근무가 있을 땐 에너지음료를 사두고 출근해 퇴근하는 길에 피로회복제를 사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일까,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 안에서 방황하던 나는 결국 연양갱 하나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다. 하도 많이 들러 익숙한 얼굴의 알바생이 말을 건다.

“언니는 오늘도 또 야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피곤해 죽겠다.”

“근데 오늘은 웬일로 양갱이래요? 핫식스 안 사고.”

“오늘은 뭐라 캐야 하노... 오늘은 뭔가 예감이 좋다. 그거 없어도 썩썩할 것 같은 거 있제.”

“잘됐네예.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카페인인가 타우린인가 그게 억수로 몸에 안 좋은 거라 카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그거 먹는다고 십 년이나 먼저 가겠나.”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노? 호호호. 아이구 언니도 참 매일 고생이다.”

“빨리 돈 벌어서 결혼해야지... 내가 돈 많이 모아서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저 해운대에 마린시티에서 살 거다. 내 언제 한번 초대할게. 호호호.”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언니 이제 늦겠다. 빨리 가 봐야 되지 않나?”

“알았다. 늦으면 또 혼나겠다. 그럼 간테이.”

“예. 언니도 수고하세요~”

딸랑. 높은 종소리를 작별 인사로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대학 등록금 모으고 있다는 아직 새파란 앤데 푹 부러지는 성격이 참

마음에 든다. 남자친구도 있다는데, 사진을 보니 눈빛 그윽하고 코도 오뚝한 게 고것 참 잘생겼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니 한창 남자친구도 만나고 할 때다. 저렇게 어린 애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에효.”

한숨만 나온다. 또 결혼 얘기. 갑자기 밀려오는 짜증에 신경질적으로 연양갱 껌질을 짤다. 그리고 한 입. 맛있네.

21시 17분.

[지문을 대주세요.]

삐빅-. 소리를 내며 똑똑한 기계는 지문을 인식했고 문이 열렸다.

“저 왔어요!”

언제나처럼 익숙한 얼굴들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자 저쪽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넨다.

“아, 주희씨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핫식스도 안 사 가지고 왔어요! 머리만 살짝 아프지 피곤하지는 않네요.”

“다행이네. 그럼 나는 이제 퇴근할게 수고해라.”

“네. 선배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 선배는 나보다 다섯 살이 많다. 주로 나와 근무교대를 하는 편이다. 어떨 땐 태도가 너무 불량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씩씩한 사람이다. 네 살 된 딸이 있는데 가끔 이곳으로 놀러 오곤 한다. 선배가 퇴근하고, 코트를 벗어 의자 뒤에 걸친 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컴퓨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가 뜨거웠다. 전자파가 나를 향해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입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엔 일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기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얼른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래도 여기는 월급도 넉넉하고 다른 직원들도 잘 해주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다. 하지만 요즘 발전소의 조짐이 별로 안 좋다. 수치를 수시로 점검하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수치가 미묘하게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몇 번 그랬던 적은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일어나기도 한다. 수치는 언제나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것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재수 없게 발전소에 무슨 사고라도 나기 전에 얼른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2014년 1월 4일, 01시 19분.

얼마나 지났을까. 출근하기 전부터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던 머리가 지금은 매우 신경이 쓰일 정도로 아프다. 누가 뒤에서 망치로 한 대 후려치기라도 한 듯이 머리가 멍하고 얼떨떨하다. 아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역시 컴퓨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가? 결국 앞자리의 신 부장에게 끄꿍대는 걸 들키고 말았다.

“주희씨 무슨 일 있나? 아픈 거가?”

“아.. 출근하기 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부장님 혹시 두통약 가지고 있으세요?”

“어디 보자... 있다. 자, 하나 먹고 해라. 우라늄이 니 머릿속까지 침투했나 보다.”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합니까. 먹고 올게요.”

신 부장에게서 두통약 한 알을 받고 컵을 챙겨 복도로 향했다.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여니 시원한 공기가 나를 감싼다. 같은 실내지만, 주 제어실을 벗어나니 나름 상쾌해졌다. 지독한 두통에 컴퓨터들이 역시 한몫했나 보다. 길고 긴 복도 중앙에 있는 정수기를 향해 걸었다. 이 발전소의 복도는 왜 이리도 긴 걸까. 자잘한 공간들이 많기는 하지만 쓸데없이 복도만 길게 만들어놓은 것 같다. 꼬맹이들도 그걸 아는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잠시 견학 온 꼬맹이들이 이곳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한다. 야간근무 하는 날에 이 복도를 지나다니면 귀신이 나올까 무섭다. 나에게 이 복도는 한없이 길기만 한 결혼 걱정 같다. 사실 내 나이 정도면 아주 결혼 걱정을 할 나이는 아닌데도 웬지 걱정된다. 이곳에서 영영 나가지 못하면 영영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알바생에게 했던 말따나 해운대 마린시티에 집 한 채 구해서 미래의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기서 뭘 해보려 해도 죄다 아저씨들밖에 없고 말이다. 이곳은 내 모든 걱정의 화신 같다. 오늘 퇴근하면 반드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리라.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국 정수기에 도착했다. 컵을 한 번 행구고는 정수를 반 컵쯤 채웠다. 두통약 껍질을 벗겨낸 뒤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으, 잠깐 닿았는데도 엄청 쓰다.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남은 물을 버리고 컵을 들고 다시 복도로 걸어가는 시간, 그 평온함. 마음속으로 점차 두통

이 사르르 사라질 거라는 작은 희망에 부풀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좀 더 만끽했어야 했다.

01시 22분.

찌이잉-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불이라도 난 건가? 그렇다면 어디서 난 거란 말인가. 오늘은 분명 예감이 좋았는데 말이다. 순간 불안한 마음에 주 제어실 문을 향해 서둘러 걸었다. 갑자기 복도가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복도는 끝까지 날 괴롭히네. 경보음은 귀를 때리며 아직도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다급한 내 목소리에도 주 제어실 직원들의 시선은 헐레벌떡 문을 박차고 우스꽝스럽게 들어온 내가 아닌 중앙 모니터를 향해 꽂혀 있었다. 주 제어실 기계 곳곳에서는 빨간 불빛이 난무했다. 설마... 설마 그런 일이. 아닐 것이다. 아닐 거야.

“설마.. 설마 아니죠?”

놀라 커진 눈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표정도 나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우리는 하나같이 어이없어했다. 마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가?’ 라고 말하는 듯이 모두들 어안이 병병한 표정뿐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열이 빠진 직원들 사이에서 곧 평정심을 되찾은 신 부장이 높아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뭇들 하고 있노. 빨리 제어봉 죄다 안 집어넣고! 주희씨는 얼른 수치 확인하고 본부장님한테 보고해! 그리고 명수씨는 비상 발전 기랑 배터리 좀 가동시키라고 연락하고!”

신 부장의 말에 모두들 각자 제 자리로 가 분주하게 기계를 다루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급하게 자리로 가 컵을 내팽겨치고 수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때, 무전기에 연결된 전화기가 울렸다. 아, 지금 저런 거 받을 시간 없는데.

“주제어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 경비의 박상익인데요.’

“말씀하세요.”

‘아 예. 지금 제가 본관 지하2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게 계측기가 이상한건지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예. 아까는 수치가 0.9더니 지금은 1.6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지금 발전소의 모든 외부전력이 끊겼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 계속 계시면 위험할 테니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건물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기계로 달려가 수치를 확인했다. 경비원의 말로는 분명 방금 전까지 0.9였다가 지금은 1.6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1.6이라.. 결코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다. 본관 지하2층의 수치가 1.6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터빈 건물이나 근접 건물의 수치는 어느 정도란 말인가.

[터빈/5.4]

5.4라면.. 조금 위험하다. 자칫 직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기라도 하면 건강에 해가 있을 정도의 수치다. 그 경비원 할아버지도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을 텐데.. 과연 발전소에서 경비원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전도 같이 신경 써 줄까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소한 문제를 신경 쓰기에는 너무 사태가 심각하다. 하필 재수 없게 머리 아파서 약 먹으려고 물 뜨러 간 사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걸, 그야말로 완벽한 내 불찰이다. 머리가 아팠다는 건 핑계거리 축에도 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신경 쓰지 못한 만큼 내 책임도 크다. 젠장. 오늘 퇴근은 글렀다.

01시 41분.

“후우...”

본부장실 문 앞에서 방사능 수치 프린트물을 들고 서성거린 지 몇 분 쯤인가. 어차피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래,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렇지만 옛날에도 한 번 백색경보까진 발령된 적 있었잖아. 어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결국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다. 푹푹-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다.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독하리만큼 진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원래 이 곳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나? 생각해 보니, 발전소에서 약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작 본부장실에 출입했던 기억

은 별로 없었다.

“들어오세요. 그레 수치가 얼마나 큼니까? 왜 방사능이 유출된 겁니까?”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찢러 대다니. 가끔 본부장실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완전 기분파야. 자기 기분 좋을 땐 좋게 대해주고, 조금만 기분 더럽다 싶으면 막 찢러대. 그래? 난 아니던데. 좋을 땐 나름 좋아.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은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 하긴,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누구나 착잡할 것이다.

“저도 경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 제어실에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오전 1시 22분에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고요, 현재 비상용 디젤발전기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 백색경보 발령을 요청했고요, 곧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1시 29분 기준으로 터빈 건물의 수치는 5.4밀리시버트입니다. 발전소 건물의 수치는 장소마다 다른데 대략 1.0에서 2.5밀리시버트 사이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방사능이 발전소 건물 밖으로 유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본부장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은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일단 정부에 경보 발령 요청했다니 그건 어쩔 수 없을 테고, 일단 비상용 발전기랑 배터리 사용 여부부터 얼른 알아 와서 다시 보고해요. 폭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터라.. 최악의 경우 1호기 폭발과 함께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일단 비상 발전기 사용 여부와 수시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답답하다. 그렇게도 안전하다고 말해 왔던 원전이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정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그냥 빨리 사직서 내고 나오는 거였는데. 오늘은 웬지 예감이 좋았는데 말이다. 여자의 직감은 틀린 게 없다더니 내 직감은 왜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그럼 얼른 가서 알아봐요. 언론이 알면 또 곤란해지니까 일단 입조심하고.”

본부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 짧게 목례를 하고, 지독한 방향제 구덩이에서 탈출했다. 당신만 답답한 게 아니라 나도 답답하다고. 당신 방의 그 방향제 향은 기분을 잔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초조하게 만든단 말이야.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나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하필 그 때 정수기로 가서! 그저 착잡할 뿐이었다.

01시 54분.

“디젤발전기 가동할 수 있어요?”

긴박한 주 제어실로 돌아와 김 선배에게 물었다. 김 선배는 초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두 대는 점검이었고 한 대는 고장 난 지 며칠 됐단다. 배터리는 아직 모르겠고. 이러다가 진짜 폭발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노? 썰끄

러워 죽겠다.”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대전인가에서도 백색경보까지 발령됐는데 더 이상 나빠진 적은 없었다 아입니까. 근데 여긴 하도 가동한 지 오래 돼갖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배터리라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다.”

김 선배와의 우울한 대화가 끝나고, 다시 자리로 갔다.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상실되었지만 그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지금은 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되는 대로 제어봉을 삽입하고, 강제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하지만 그 정도는 원자로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미 정지했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창 초조해하고 있을 때, 때르르릉. 오늘따라 거슬리는 소리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무도 선불리 전화를 받지 않자 쟈장, 신 부장이 나를 지목한다.

“주희씨 전화 좀 받아봐.”

보나마나 정부에서 온 전화겠지. 생각만 해도 싫다. 여기서 나가고만 싶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입니다.”

‘정부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오전 1시 25분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결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백색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백색경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비상용 발전기 같은 건 없습니까?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세 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침 수리 중이었어요. 지금 원자로에 스크램이 이루어지긴 했

는데, 그게 다라구요. 벌써 발전소 건물 안에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터빈 건물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나 알아요? 5.4마이크로시버트나 된다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껌도 아이다 이겁니까?”

‘그래서 저희보고 어찌라는 겁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요.’

“자칫하면 발전소가 폭발한다고요. 40년이나 된 발전소가 어디 제대로 굴러가거나 하겠어요? 왜 수명 끝나고도 폐로하지 않고선 지금 사건 터지니까 이 난리네.”

“됐습니다. 일단 언론에는 알리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어찌 되려고.. 한수원에도 연락해서 실시간 방사능 창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원인이 뭔지나 알아보세요. 수소폭발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아, 비상 냉각수는 없던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안전하다고 하더니.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싸늘한 마지막 한 마디를 끝으로 통화는 끝났다. 그래서 어찌라고? 언론에는 알리지 않겠다고? 마지막에 그 빈정거리는 말투는 또 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돈을 들어가며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말해 왔건만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지니 등부터 돌리려 든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면서. 벌써 오래 전에 먹은 두통약은 제 효과를 발휘했지만 다시 머리가 스트레스로 지끈거린다.

“주희씨. 일단 진정해라. 어떻게든 폭발만 안 되게 막아 봐야지.”

“선배도 그 전화를 받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말투하며 목소리가 시건방지게 정말. 무슨 우리가 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직 폭발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지. 아직은 경보 발령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꼭 폭발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이가. 갑자기 와 그라노?”

“모르겠네요. 머리로 다시 아플라 그러고.. 무슨 되는 일이 없어. 배터리는 어떻게 됐는데요?”

“나도 모르겠다.”

젠장. 모르긴 뭘 몰라!

02시 16분.

발전소 건물 내로 방사능이 퍼졌다. 정확히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지금 내 몸도 방사선에 피폭되어 있을 것이다. 못해도 일반인의 한 달 방사선허용기준치는 넘었을 것이다. 한 달. 한 달까지는 괜찮다. 지금이라도 얼른 이곳을 벗어나 부산시내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화기 너머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선배에게 역정을 내고 밖으로 물이나 마시러 나온 꼴이라니. 오늘이 평소 같은 날이었으면 난 당장 해고되어도 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잘됐다. 사태가 끝나면 사직서나 내 버려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까. 폭발을 비켜 갈 수나 있을까..

답답한 속마음에 정수기로 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물에도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나까지는 상관없다. 어차피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들어온 회사이니까. 그렇지만 죄 없는 부산시민들은? 만약 정말로 1호기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400만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슬러 올라가, 왜 부산에다가 원전을 지은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 고작 자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내치려 하는 정부가 싫었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있는 건데 정작 정부 관리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바쁘고 사건이 터지니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만약을 대비해 내 지인들이라도 챙길 것이다.

[수진, 혜인, 민경, 정현 가시나들아 잘들어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고리1호기가 채수 없게 모든 외부전원이 끊겼어, 지금 정부에서 백색경보까지 발령됐어. 3차 경고 중에 1차 경고라고 보면 됨.

내가 보기엔 잘하면 이 발전소가 폭발할 지도 모르거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방사선이 몸에 피폭되면 얼마나 나쁜지를. 폭발하면 부산 시민들은 망해 아직은 모르지만 너네들 조심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 알아보던지 아침 뉴스를 꼭 봐. 그때쯤이면 아마 피난령 내려지고 난리도 아닐걸ㅋㅋㅋ 난 상황 봐서 여길 빠져나가고 싶지만ㅠㅠ 내가 판짓하다가 먼저 발견 못 한 거라서 도망칠 수도 없다.ㅠㅠㅋㅋ 만약 뉴스에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말하면 당장 부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 기왕이면 외국이 제일 좋겠지. 근데 우린 그렇게까지 부잔 아니니 힘들겠지

만. 여차하면 강원도 맨 끝이라도 알아봐. 그냥 이참에 이민이나
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으로. 알았지! 너네들 일어나자마자
문자보면 뉴스부터 봐라ㅋㅋ 나 죽으면 어떡해?ㅋㅋㅋㅋ안녕]

[강준희 잘 들어라. 지금 이 문자 보면 넌 최대한 빨리 부산 말고
부산에서 켈 먼 곳으로 이민 갈 준비부터 해. 지금 누나 회사 원
전1호기가 외부전력이 모두 차단되어버려서 정말 운이 안 좋으면
폭발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교통마
비 오기 전에 빨리 멀리 떠나버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김
해로 가서 엄마아빠 데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 이모네 집으로 가.
그냥 평소 가던 것처럼 이모네 놀러간다고 생각하고 집 대충 비우
고 이모네로 가. 내가 오버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 문자 보
면 아침 비행기 타고 가라, 알겠지? 아마 내일 아침쯤에 뉴스 보
면 피난령 뜰 거야. 피난령이 뜨던 안 뜨던 간에 그냥 미국으로
가. 알겠지? 나 진지하다.]

03시 48분.

“나사가 빠졌다고?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정부에 다시 연락해라. 청색경보 정돈 내려주겠지... 기계 관리
자들도 5시에 출근하자마자 비상사태란 것 알려주고. 지금 우리끼
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전에 연락해서 인력파견도 함 부
탁해 봐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 봐야지.”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도 작아서 발견하는 데에 시간이 많
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디 나사가 빠지면 발전소 내부까지 방사능이 유출되는 건
데?”

“외부전력이 끊기고 원자로가 자동정지가 되서 스크램은 이루어
졌는데,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 열로 인해 냉각수의 온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원자로의 온도는 더 높아졌고, 뜨거워지면서 원자로에
연결된 증기 파이프의 기압도 높아졌고요. 파이프가 그 압력을 견
디지 못해 나사 하나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추정돼요. 나사가 빠지
면서 파이프에 틈이 생겨 방사성 증기가 밖으로 빠져 나오면서 터
빈 건물까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사 한 개였는데 점점
하나둘씩 빠지면서 파이프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사가 빠진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잘하면 폭발할 수도 있단 소리네.”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러면 지금 발전소 밖의 방사선 수치는 얼마나 되노?”

“아직은 미세한 변화밖엔 없지만 파이프가 하나둘씩 불안정해져
가면서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큼니다. 인력으로 다시
나사를 조립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알겠습니다.”

주제어실 안에서는 암울한 대화만이 오갔다. 이젠 정말로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단순한 외부전력 공급 불가
만이 아니었다.

“주희씨는 다시 터빈 건물이랑 원자로 내부랑 발전소 건물 안 수치 측정해서 본부장님께 보고하고. 이제 사고 원인도 밝혀졌으니 본부장님 또 한 성격 나오시겠네. 수고해라.”

“네.”

일이 이렇게까지 변진 이상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도 해야지. 평소대로라면 퇴근까지 약 한 시간이 남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상, 진즉에 퇴근은 글렀다. 아마 나는 끝까지 이곳에 남아 사태가 어떻게든 정리될 때까지 남아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젠장, 집에 피자 먹다 만 것들 네 조각이나 남아 있는데. 오늘 퇴근하면 한숨 잔 뒤에 아점으로 남은 조각들 먹으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갑자기 외부전력이 끊길 게 뭐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랍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챙겨들고 코트를 걸친 뒤 발전소 건물 밖으로 나섰다. 바깥은 언제나처럼 조용하다. 그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릴 뿐이다. 발전소 앞 바다에서는 흔한 어촌 마을 바다 저 멀리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고깃배의 불빛조차 볼 수 없다. 발전소에서 방사능을 조금 포함한 온배수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버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방사선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때문에 근처의 고기들이 몰려들어 몰래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과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검은 바다는 달빛만을 받아 은은하게 빛난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닷물은 방금 전까지 건물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망각하게 만든다. 새벽 바다는 이렇게나 평화로운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안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알까.

03시 56분.

[0.3]

0.3이라.. 아직 바깥까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도 방사능이 벌써 바깥까지 나오다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손바닥에 재수 없는 숫자를 끄적거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알면서도 이런 의미 없는 숫자들이나 적고 있어야 한다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철문이 보인다. 저 곳만 벗어나면 나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갈 순 없다. 여긴 내 회사고, 아직 근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피곤하다. 역시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를 살 걸 그랬나. 하긴 평소라면 폭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렇게 왔다갔다했으니 이렇게 피곤할 만도 하다. 에너지 음료라도 마셨으면 지금쯤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을 텐데. 두통은 쉽사리 떠나지 않는다.

썩썩한 마음으로 몸을 이끌고 결국 다시 주 제어실로 돌아왔다. 주 제어실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오갔다. 누군 급해 죽겠는데 지금 목소리 높일 일이나 있다.

“아직 언론에 올릴 만한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립니까. 이제까지 밖으로 방사능 유출 된 적 있어요? 없잖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들 다 죽이자고요?”

“아직 정확한 수치도 모른다 아이가. 괜히 언론까지 알렸다가 무

슨 봉변을 당할라고 그러노. 이 꼭두새벽에 누가 또 본다고.”

“수치야 뻔하잖습니까. 차라리 빨리 알리는 게 나아요. 마을 이장한테라도 알리자고요.”

“마침 저기 주희씨 왔네. 그래 밖에 수치가 얼마나 되노?”

갑자기 왜 불뚱이 나한테로 튀는 걸까. 망할 놈의 직업. 차라리 기계를 조종하는 일을 더 공부할 걸 그랬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기계 조종이 어려운 건 다들 아는 일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3시 56분 기준으로 발전소 정문 수치는 0.3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0.3이라고? 밖인데 수치가 그만큼이나 나오나?”

“그런가 보죠 뭐.”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놀랐는지 신 부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러나 이내 곧 평정심을 찾은 신 부장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냥 인력과견 요청만 하면 될 거다.”

신 부장은 왜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것일까. 어디서 로비라도 받고 있는 건가. 현재 우리가 사고를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될 것이었다. 숨기려 해도 항상 들키는 일이 파다하였다.

“신 부장님, 어차피 나중이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청색경보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에 여기서 더 숨기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일반인 연간피폭선량 정돈 당연히 넘었을 거예요. 지금 건물 안 수치가 얼마인데. 우리도 위험하다고요. 이럴 시간에 우리끼리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신 부장에게 한소리 한 뒤 컴퓨터로 가 수치를 프린터로 출력했다. 그리고 코트를 다시 벗어 의자에 던져 놓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잊었던 한 마디가 생각났다.

“청색경보 내려지고 이왕이면 규모가 큰 회사로 알려세요. 이걸 묻히면 안돼요.”

달각. 하고 주제어실 문은 닫혔다.

04시 17분.

똑똑. 그 지독한 방향제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니.

“방사능이 유출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본부장은 영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위아래로 나를 쪽 훑어보더니 말했다.

“계속해보세요.”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크램이 이루어지고 제어봉도 정상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핵분열이 계속되면서 냉각수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고 원자로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 원자로의 증기의 기압이 높아졌습니다. 기압이 높아지면서 원자로에 연결된 증기 파이프의 압력이 점차 높아져 결국엔 파이프의 나사가 한두 개씩 빠져버렸어요. 나사가 빠지면서 생긴 틈으로 증기가 새면서 터빈 건물까지 방사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정문 방사선 수치는 3시 56분 기준으로 0.3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조금 전 정부에 청색경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고를 들은 본부장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지금 본부장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에선 계속 연락이 올 것ियो, 발전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날 것이 분명했다. 내가 본부장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청색경보라고.. 그럼 언론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제어실 내에서 논의한 결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까딱하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만약 정부에서 방사능 재난을 선포한다면 일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근무자들도 아직 출근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람끼리 해결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알겠으니 그럼 이만 가 봐요. 수시로 수치 기록하는 거 잊지 말고. 비상용 냉각수 사용 여부도 꼭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알겠습니다.”

으, 지독한 방향제. 아까와 같이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본부장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의 시원한 공기가 내 주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 공기에도 방사능이 들어 있겠지. 이미 일반인의 연간허용피폭선량을 훨씬 넘어섰겠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코로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도 느낄 수 없지만 그것들은 서서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을 것이다. 글로만 읽고 소리로만 들었던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니. 무섭다.

04시 25분.

다시 주제어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 벨 소리. 보나마나 또 정부일 것이다. 어차피 밀쳐야 본전이지.

“고리1호기 주제어실입니다.”

‘정부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상황보고를 받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백색경보에서 청색경보로 등급을 높이고, 곧 방사능 재난을 선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은 언제쯤 도착하는데요?”

“아직 한국전력 직원들이 모이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마을 대표한테 상황을 알리고 스피커로 경고조치라도 내리세요. 새벽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이번엔 정부 쪽에서도 위급함을 느끼긴 했나 보다. 조금 전과는 다르게 말투가 공손하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착잡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로 가 수치를 확인해보았다. 터빈 건물 수치를 확인해보니 5.7마이크로시버트였다. 좀 전과 별다른 것 없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한 번 쯤다고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열 시간만 있으면 방사선작업자의 연간 허용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위우. 정말 발전소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살아남게 될 사람은 얼마 없겠지..

그 때, 주제어실 문이 열리고 박 선배가 들어왔다. 하필 분위기 안 좋을 이럴 때 출근해야 한다니 선배도 참 운 없다.

“선배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암울하노. 핫식스 못 먹었나?”

“선배, 지금 청색경보 발령됐어요. 저 퇴근 못 하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박 선배는 마치 우리가 처음 경보음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의 표정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굉장히 당황한 듯 하면서도 겁에 질린 표정. 여우 피하려 다 호랑이 만난 표정. 상당히 충격적이겠지.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선배 퇴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외부전력이 끊겼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력이 끊겨서 자동으로 스크램이 되긴 했는데,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니까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더 뜨거워졌어요. 원자로 증기 기압이 높아지니까 증기 파이프가 압력을 못 버텨서 파이프에 나사가 하나둘씩 빠졌나 봐요. 그래서 증기는 나사 빠진 틈으로 빠져나가고. 방사선 수치는 올라가고 발전소 내에도 방사능 퍼지고. 방금 전에 청색경보 발령 전화로 받았어요. 놀라실 거 아는데 저흰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부산 다 망하는 거죠 뭐.”

선배에게서 말이 없다.

“죽었어요? 왜 말이 없노.”

“죽을 만큼 어이가 없다. 참내. 이게 무슨 일이고? 비상발전기랑 냉각수랑은 다 어떻게 됐는데?”

“죄다 수리중. 세 대 몽땅 다. 수소폭발이나 안 일어나도록 빌어야죠.”

“...우짜노.”

04시 45분.

새벽 내내 긴박함 속에서 걸어다녔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출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다. 하루쯤 빠지고 멀리 도망간다거나 에너지 음료를 사 들고 왔을 텐데 말이다. 몸이 천근만근 쇠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단 것처럼 무겁고 축 처진다.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든다더니 정말 그렇다. 눈꺼풀은 자꾸만 감겨오고 몸은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아직 두통도 안 가셨다. 영락없는 환자 꼴이 되고 말았다. 컴퓨터 앞 의자에 널부러져 앉아 책상 서랍을 뒤적거렸다. 책상 안은 알 수 없는 문서들로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인 서랍 속에서 빨간 두통약을 발견하고는 작은 탄식을 내뿜었다. 약이라도 먹어야지.

빨갛고 조그마한 알약 한 알과 책상 위에서 텅굴고 있는 컵을 집어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길고 긴 복도가 다시 나를 반긴다. 마치 세 시간 전 약을 먹기 위해 나온 풍경과 똑같다. 세 시간 전, 그 여유로움을 만끽했어야 했다.

컵에 물을 따라 알약과 함께 삼켰다. 다시 주제어실로 돌아가는 길, 이번엔 무슨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주제어실 문을 여는 순간, 김 선배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주희씨 저것 좀 봐라. 실시간검색어 1위가 방사능 재난이다. 이 새벽에 검색어 1등이라니.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한 건 터뜨리긴 했나 보다.”

김 선배의 말대로, ‘방사능 재난’은 새벽 5시가 되어가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등을 달리고 있었다. 정부가 드디어 방사능 재난을 선언한 건가. 이젠 뭘 들어

도 놀랍지 않다.

[정부는 오전 4시 44분 고리1호기에 방사능 재난을 선포했다.]
인터넷 뉴스는 이 한 마디만으로, 모든 것을 담아냈다.

05시 02분.

“스피커로 방송 했나?”

신 부장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분명 부장이라는 직급은 좋을 테지만, 이럴 때만 사서 고생이니. 역시 높은 자리이니만큼 그만한 책임감도 커진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반경 2킬로미터 내의 주민들에게 방사능 재난이 닥쳐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꼭 두새벽부터 끔찍한 소식을 방송으로 들어야 할 주민들에겐 죄송하기만 하다.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홍보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몇 번을 강조해왔는데. 미안해요, 사실 이곳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건드리고 말았네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 노심용융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노심용융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폭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발전소 건물만 해도 내 나이를 훌쩍 넘는다. 40년이나 말아먹은 건물이 노심용융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부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폐로해 버릴 것이지. 멍청하고 융통성 없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화가 난다.

“기계 관리랑 방사선 관리 출근했단다. 주희씨가 한 번 가봐라.”
게다가 출근하자마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할 근무자들에게도 죄송하다. 박 선배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네.”

다시 코트를 걸쳤다. 휴대폰과 방사능 측정기를 주머니에 쑤셔박고, 주제어실 문을 나섰다.

05시 19분.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원자로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청색경보와 방사능 재난이 선포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은 근무자들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젠장.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 영문도 모르고 모여 있는 근무자들 앞에 서 있자니,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다.

“다 모인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일로 모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발전소에 청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방사능 재난이 선포되었고요. 오전 1시 22분 스테이션 블랙아웃이 일어나면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 이곳의 방사선 수치도 평소보다 몇 십 배쯤 높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째 반복하는 건지. 그때그때마다 말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다. 순간 충격을 먹은 듯 경직되었다가 서서히 풀리면서 얼이 빠져나가는, 귀신에라도 홀린 듯한 표정. 나도 그랬을까? 미안함에 근무자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 대표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말을 꺼냈다.

“어쩌다가 방사능 재난이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건데요?”

또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니. 또 같은 표정을 보고선 또다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외부전력이 차단되고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고 스크램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핵분열이 계속되면서 냉각수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원자로 온도는 올라갔구요. 그래서 격납용기 안의 증기의 기압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증기 파이프의 나사가 하나둘씩 떨어져나갔어요. 그 틈으로 증기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불과 세 시간 반 전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똑같은 표정. 다시 수그러지는 고개.

“그래서 청색경보까지 된 겁니까? 그럼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지금 비상용 발전기가 점검중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상 냉각수 장치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든 냉각수만 해결되면 큰불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바닷물이라도 이용해 봐야죠. 파이프는 일단.. 미뤄 두시고요.”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정곡을 찔렀다. 사실 지금 폭발할 가능성 말고는 거의 없어요, 아

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

“아직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구차한 변명뿐이다.

05시 26분.

“하아..”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냉각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대로 끝이다. 제발 어떻게든 비상용 냉각수를 돌릴 수 있어야 할 텐데. 냉각수만 어떻게든 되면 폭발은 대충이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발전소에 입사하기 위해 그렇게 공부했던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려 해봐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 김 선배가 말했다.

“주희씨, 밖으로 나가서 마을 곳곳에 방사능 수치 좀 알아와봐. 우리도 바쁘다. 수치만 알아온 다음에 조금 쉬던지. 근데 쉴 수가 있으려나..”

이제는 마을 곳곳이라니. 이러다가 진짜 폭발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젠장.

코트를 다시 입고 바깥으로 나왔다. 벌써 코트만 몇 번째 입었다 벗었다 하는지. 하도 난리라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차를 가

지러 집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나 편의점을 훑듯 들여다보았다. 그새 알바생이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수고하라고, 잘 가라고 했던 알바생은 지금쯤 자고 있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지나 말았으면. 언니가 다 미안하다.

집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니 내가 나갔을 때 그대로 어질러져 있었다. 헤어 드라이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그대로 꽂혀 있는가 하면, 화장대의 로션 뚜껑은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바닥을 굴러다닌다. 바닥 한 편 구석에는 어제 먹고 남은 라면그릇이 젓가락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나마 나은 건 오직 침대뿐이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그래도 방사능 가득한 발전소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흐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발길은 자연스레 차 열쇠가 놓여있는 책상이 아닌 침대로 향하게 되었다. 잠깐이면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쉬다가 일어나도 괜찮을 것이다.

그 ‘잠깐’ 이 목숨을 위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11시 34분.

햇살은 베란다를 통과해 침대를 비쳤다. 갑작스런 눈부심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지금이 몇 시지? 난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지? 졸린 눈을 비비고 더듬거리면서 휴대폰을 찾았다.

[오전 11시 35분]

11시 35분? 믿을 수가 없다.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휴대폰의 잠금 버튼을 눌러냈고 놀라 커진 두 눈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휴대폰 화면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틀림없는 11시 35분이다. 심지어 이젠 36분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큰일났다..”

용수철에서 튀어 오르듯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났다. 하긴.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플 만도 하다. 고민하고 있는 사이, 냉장고의 피자가 생각났다. 그냥 차 타면서라도 먹어야겠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피자 조각들을 죄다 접시에 쏘은 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눌렀다. 위잉-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화장실로 튀어갔다.

물론 고양이세수를 한 뒤,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끄고 접시를 꺼냈다. 다시 다른 곳에 담아야 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한 손에는 접시를 들고, 한 손에는 차 열쇠와 핸드폰을 들고 마지막으로 보일러를 끈 뒤 현관문을 나섰다. 이제 이 집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운이 아주 좋으면 다시 이곳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씩씩한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11시 43분.

가까스로 차를 몰고 나왔건만, 도로의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로는 오고 가는 차선 할 것 없이 죄다 차로 막혀 있었다. 온 마을의 차들이 죄다 도로로 나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휴대폰을 켜보니, 그동안 밀려 있었던 수많은 전화와 문자 알림들로 한동안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 17통]

[김부장님 | 어디고? 상황 더 악화됐다. 수치 더 높아졌다. 확인해봐라.]

[신 선배 |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제 진짜 망했다. 빨리 와라.]

[강준희 | 누나 어딘데? 지금 김해 왔다. 뭐 소린지 알아야 될 어찌지.. 곧 비행기 출발하는데 누나도 올 수 있음 와라. 회사 켜고 가는 거다. 나랑 엄마랑 아빠랑은 간다. 전화도 했는데 안 받네.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건데?]

[박수진 | 아직 서울인데. 그럼 우리 집도 못 가나? 속보 보니까 장난 아닌데. 나 해운대 사는데 어떡하노? 너는 괜찮나?]

[정혜인 | 그럼 너는 어찌노? 그냥 거기서 나오면 안되나?]

[김민경 | 속보 뭔데? 진짜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신정현 | 친정 왔는데. 속보 봤다. 너는 괜찮나? 다른 애들도 다니 연락 안된다고 난리던데. 문자 보면 일단 수진이한테 전화 먼저 때려라. 걱정돼 죽겠다 가시나야.]

[김부장님 | 본부장이 찾는다. 어디갔노?]

[박수진 | 진짜 죽었나!!!!???? 아직 안 죽었지?]

[박수진 | 빨리 연락 좀 해봐라. 지금 시어머니 맥 와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건데.. 우리 집에 통장이랑 다 있는데. 김해가는 비행기표 취소했다. 일단 서울에 있을 거니까 우리까진 괜찮겠지?]

[신정현 | 어디고?]

[김부장님 | 반경 2킬로미터 주민 대피 조치 내렸다. 주민들은 월내초등학교로 갈 테니가 수치 한 번 조사해보고. 차 타고 가지 마, 아마 차 엄청 막힐거다.]

[신선배 | 빨리 온나. 졸려 죽겠다. 수치 문자로라도 보내줘.] 그 순간, 다시 한 번 전화벨이 울렸다. 김부장이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노? 몇 번을 전화했는데 지금 받는 거가?’

“그게요. 차열쇠 가지러 집에 잠깐 갔었는데 그..”

‘그래서 지금까지 잠만 잤단 말인가? 하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수치 조사해서 갈게요. 배고프시죠? 먹을 거라도 줘..”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그건 아니지만...”

‘됐다. 그래도 살아는 있어서 다행이네. 일단 초등학교랑 해수욕장이랑 집이랑 수치 좀 알아갖고 와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좀 그만하고 빨리 일이나 해 갖고 와라. 끊는다.’

된통 혼났다. 그래도 금방 수그러들어서 다행이다. 그렇지만 지금 도로 상태를 봐서는 전혀 차를 몰고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어떡해야 할까. 그 때, 편의점 앞에 항상 놓여 있던 자전거가 생각났다. 평 대신 닭이라고, 자전거라도 타고 가야겠다.

11시 56분.

[2.4]

아파트 정문 앞의 수치는 2.4밀리시버트였다. 2.4밀리시버트라면 세계 평균 연간 자연방사선 양 정도이다. 이런 곳에서 하루만 지내도 발전소 근무자들의 연간선량 최대한도를 넘는 양이다. 이곳에 오래 있어봤자 좋은 것도 없을 텐데. 어차피 도망가지도 못할 거 차라리 발전소가 그냥 폭발했으면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자 두 조각을 자리에서 해치우고, 차 문을 잠근 뒤 걸어서 편의점까지 갔다. 편의점 앞에 다다르니 자전거는 언제나처럼 그대로 있었다. 혹 자물쇠가 걸려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바퀴와 체인 쪽을 살펴보았지만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다. 바퀴를 만져 보니 바람도 충분히 차 있었다. 다행이다. 자전거 주인님, 미안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가 이 자전거를 타야겠습니다. 나중, 아니 한 몇 십 년 뒤에 자전거를 찾으러 오셔야 할 테지만요...

자전거를 타고 월내초등학교로 가는 길은 꽤 힘들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다닐까 하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차도로 바꿨는데 도중에 몇 번 차와 박을 뺐했다. 주민들은 이제야 소식을 들은 것일까.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내에는 주민들이 1만 7천명쯤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 거의 절반인 2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8천명쯤 되는 것이다. 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까.

월내초등학교 운동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방사능에 대한 긴급

상황시 긴급 피난처로 마련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발전소와 너무 가까이 있다. 이곳에 있어 봤자 더 나을 것은 없을 데였지만,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와 계셨다. 사고는 났는데, 대체 이곳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2.1]

대책 없이 무책임한 정부가 싫어졌다.

12시 13분.

반대편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마주하며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를 엄습한다.

박상익

2014년 1월 4일, 23시 30분.

“일어나소. 일 가야지.”

아내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인다.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기가 빠져 그런가. 목직한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방안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해변에 들이치는 파도처럼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다. 손이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온다.

“오늘 꼭 가야 되나? 이리 추운데 이 새벽에 나가노.”

“그래도 일인데... 나가야 먹고살지.”

“오늘은 가지 말지..”

“됐다. 추우니까 나오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자소.”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얼굴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아내를 뒤로 한 채 자전거를 끌고 대문을 나섰다. 집과 발

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15분. 마음먹고 어떤 일을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빈둥거리며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자전거를 타며 발전소까지 페달을 밟는 15분 동안은 옛날 생각을 한다. 어린 시절 기억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발전소가 동네로 들어서고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것도 30대에 들어서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돈 꽤나 되어 보이는 양복쟁이들이 비싼 차를 몰며 종종 마을로 들어오곤 했다. 양복쟁이들이 오지 않는 날이면 당장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듯 큰 중장비 차들이 마을로 들어와 봉화산 남쪽 부근에서 지질을 측정한다. 시고 조사하다 가기도 했다. 소문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란다. 여기가 발전소를 만들기에 안전한 마을인지 보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측정하는 거란다. 그런데 그 발전소가 까딱 잘못하면 6.25 때 폭탄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거란다.

“그러면 와 우리 마을에다 허락도 없이 그 원자력발전소란 걸 짓는 대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짓기 가장 좋은 장소란다. 정부에서 그랬대.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최초인기라. 만 들어졌다 하면 마을 발전도 되고 좋은 거 아니가?”

“마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노. 까딱 잘못하면 폭발한다 안 카나. 웬만한 폭탄보다 발전소가 훨씬 폭발이 크다 안 카나. 해방 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있제? 그거랑 발전소랑 똑같다.”

“하이고 무섭네. 원폭이랑 똑같다고? 그건 좀 무섭다. 그럼 지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실수야 안 하면 되는 기고, 여태까지 폭발한 일 있었나? 없다 아

이가.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들 학교도 보내고 밥도 맛있는 거 멕이고 해야제.”

그때는 원자력발전소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제대로 몰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발과 오염을 두려워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갖추어진 지역발전을 원했다. 결국 발전소는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로 마을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발전소는 지어졌지만 찬성했던 사람들의 말마따나 마을은 아주 번창하지는 않았다.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의 숙식을 제공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민박집을 운영하다 곧 발전소의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된 나는 그 후로 20년째 일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 5일, 00시 07분.

“이제 왔나? 조금 늦었구마이..”

“날이 워낙 추워서 말이제. 밖에 함 나가 보소. 얼마나 추운지..”

“내일이 일 년 중 제일 추운 소한 아이가. 날씨가 무슨 작년보다 더 춥노.. 하여튼 나는 이제 갈 테니 육보소.”

“알았다. 잘 가그레이.”

문이 닫히니 안경에 하얀 김이 서렸다. 의자에 앉기만 해도 방이 팍 차는 한 평짜리 좁은 공간이지만 바깥보다는 훨씬 따뜻하다. 몸을 녹이며 평소대로 발전소를 오고가는 차들을 관리한다. 열두 시가 지나 교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맘때쯤이면 새벽이라 해도 차들이 꽤 많이 지나다닌다. 창문 저 너머로는 작게나마 바다가 보인다. 왜인지 인근 바다에서는 아무도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다. 발전소

에서 내보내는 물에 방사능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병에 걸린단다. 그 병은 아무도 못 고친단다. 걸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단다. 발전소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똑같은 경비 일인데도 다른 곳보다 수당을 더 많이 준다.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발전소에서는 바다로 방사능이 든 물을 내보낸다. 방사능이면 어땠고 바다로 흘러간들 어떠하랴. 지금 이 자리도 해고되면 이젠 더 이상 먹고살 방법이 없다. 휴. 하고 한숨이 새어 나온다. 오늘따라 히터가 따뜻하네...

찌르릉. 하며 울리는 조그마한 알람시계가 오전 1시임을 알렸다. 또 깜박 졸았나. 새벽 근무교대만 했다 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잠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만 따뜻해도 금세 잠이 몰려온다. 젊었을 때는 워낙 혈기가 넘쳐서 노느라 밤을 새운 경우도 허다했다. 어느 노인에게나 젊은 시절은 아름답고 찬란했겠지. 나도 그랬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또 누군가가 죽고,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돌겠지...

플래시와 방사선 계측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요즘 초소 근처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자꾸 얼짱대기에 밥을 한 그릇 줬더니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언제 알았는지 또 줄래줄래 나를 따라온다.

“저리 가래이. 너는 출지도 않나?”

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는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우수에 젖은 눈은 마치 ‘추워. 놀아줘. 배고프고 심심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은 일이다. 순찰을 돌고 오면 여유가 생길 테니 그 때 먹을 것을 주지.

조용하고 텅 빈 복도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적막한 공기만이 복도를 맴돈다. 이곳은 내가 첫 순찰을 돌 때부터 항상 조용했다. 물속에 있듯이 고요하고 잔잔해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기분은 왠지 모르게 편안해진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생각나 방사능 계측기를 들여다보았다.

-

[0.9]

뭔가 이상하다. 평소에는 수치가 0.08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원래는 점 앞에 숫자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었다. 순간 잘못 보거나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해서 다시 계측기를 들여다보았다. 계측기의 바늘은 틀림없이 0.9라는 의아한 눈금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바늘은 밖에서 마주친 떠돌이 개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던 것처럼 흔들리더니 윗칸 눈금으로 서서히 옮겨져 가고 있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던 눈금은 점점 움직이며 1.0을 넘어서고는 1.5를 향해 치솟고 있었다.

“이거 와 이러겠노. 고장났나??”

문득, 처음 계측기를 배당받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 ‘보세요. 지금 수치는 1이 넘지 않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만약에 수치가 1이라도 넘는 즉시 바로 주제어실로 연락주세요. 2가 넘어가고 3이 되는 순간 우린 다 죽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면 병에 걸려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발전소가 폭발할 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셨죠?’

3이 넘어가면 발전소가 폭발할 지도 모른다고..?

... ‘마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노. 까딱 잘못하면 폭발한다 안 카나. 웬만한 폭탄보다 발전소가 훨씬 폭발이 크다 안 카나. 해방 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있제? 그거랑 발전소랑 똑같다.’

웬만한 폭탄보다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훨씬 큰 폭발이라고...? 원폭에 맞먹어...?

계측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보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켤 때마다 수치는 점점 위로 치솟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까지 날 지경이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눈금의 차이일 뿐이다. 분명 계측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되짚어보자. 계측기의 건전지를 갈아 끼웠던 때가 한 1년 전이었다. 아니지. 계측기는 건전지가 없다. 몇 년 동안 쓰다가 갑자기 꺼졌을 때가 몇 번 있었던 것도 같다. 그 때마다 회사에서는 새 계측기를 주곤 했었다. 두 달 전, 회사에서는 계측기를 새 걸로 교체해 주었다. 두 달 전. 두 달 전이라... 계측기가 두 달 만에 고장 날 리가 없다. 다급한 마음에 바지 뒷주머니의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주제어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 저 경비의 박상익인데요.”

‘말씀하세요.’

“아 예. 지금 제가 본관 지하2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게 계측기가 이상한건지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예. 아까는 수치가 0.9더니 지금은 1.6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지금 발전소의 모든 외부전력이 끊겼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 계속 계시면 위험할 테니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 건물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다급한 마음에 내 목소리도 떨리고 무전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도 한껏 긴장한 목소리다. 발전소의 외부전력이 끊겼다고? 여기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일인가? 제대로 확실히는 건 아니지만, 조짐이 좋지 않다. 무전기 저 너머 주제어실의 말에 따라 아무도 없는 복도의 저 끝으로 일단 뛰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혼자 생각하며 걸었을 땐 짧다고 생각했던 복도가 지금은 한 없이 길어 보인다. 끝이 없었다. 드디어 저 앞에 계단이 보인다. 도망가야 한다. 난 살아야 해...

01시 17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가까스로 발전소 건물 밖을 나와 경비 초소가 있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떠돌이 개가 나에게로 달려온다.

“휘이. 저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은 너와 장난칠 시간이 없단 말이다. 발전소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가까이 있는 우리 집은? 내 아내는? 조금만 있으면 설인데. 내 자식들은? 손주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떠돌이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따라온다. 너도 살아라. 도망가거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

했는데. 갑자기 왜 수치가 올라간 걸까. 내가 계측기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던 말인가. 누군가의 되먹지 못한 소행인 건가. 만약 발전소가 폭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원자폭탄과 맞먹은 발전소의 폭발이라..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발전소의 안전을 강조해왔다.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예전과 그대로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방사능 수치는 왜 갑자기 오른 것일까. 단순히 계측기가 고장이 나서? 계측기를 교체한 지는 불과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지금껏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장이 나기 직전인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에도 계측기의 화면이 이유 없이 깜박거리거나 꺼지기만 했을 뿐이지, 지금처럼 수치가 올라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결론은, 지금 발전소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계측기를 나눠 주던 직원은 수치가 2가 넘어가고 3까지 넘어가는 순간 발전소가 폭발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우린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배가 곱는지,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아직도 나를 따라오던 개가 나를 쳐다본다. 할아버지, 나도 배고파. 하고 말하는 걸까? 안타깝지만 우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기만을 빌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느새 초소 안의 책상 서랍에서 사료 봉지를 꺼내고 있었다.

“먹어라. 많이 먹어야제..”

아무도 없는 초소에서, 나는 언젠가부터 나타난 저 개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는지도 모른다. 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게 눈 감추듯 밥그릇 속의 사료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밥그릇을 비우고 웬지 모르게 뿌듯해 보이는 개의 표정은 어렴풋이, 언제 봤는지도 아득한 작

은손자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지금 보니 털이 참 지저분하다. 얼마나 떠돌아다녔으면.. 만약에 발전소가 폭발해도, 너만은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거라.

개를 한 번 쓰다듬어주고서 초소 안으로 들어왔다. 히터가 꺼진 초소는 바깥온도와 별다를 것 없이 춥다. 의자에 앉는 순간, 발전소가 정말로 폭발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또다시 어지럽혔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이 그리도 무서움을 타는가. 하지만 정말로 발전소가 폭발한다면...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조심하라고 전화는 해 주어야겠다. 담담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집어 들고 차근차근, 이미 수백 번을 눌러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506, 032...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숫자 1. 그 순간, 발전소는 폭발했다.

01시 23분.

굉장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굉장했다. 발전소에서는 실로 엄청난 소리가 났다. ‘고막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 딱 알맞은, 그런 소음이었다. 폭발 소리는 사방을 울렸고, 바다 저 너머 일본 대마도까지 들릴 법했다. 그것은 마치 붉은 뱀을 연상시켰다. 붉은 뱀은 발전소를 휘감고 헛바닥을 날름거리며 주위에 불길을 퍼뜨리고 있었다. 불은, 아니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불꽃은 신기할 만큼 크고 다채로운 빛깔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불꽃은 새빨강고, 빨강고, 셋노랑고, 노랗다. 주황빛도 있었고, 다홍빛도 있었다. 언젠가 딸이 한 번 먹어보라며 사온 포도주 빛도

있었다. 온갖 붉은 계열의 색깔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불기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치솟았다. 우주를 뚫을 듯이 거대한 불기둥은 마치 불지옥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불기둥에서는 수박 크기에서부터 바퀴 크기까지의 다양한 불똥들을 사방으로 떨어냈고, 떨어진 불똥들은 곳곳에 퍼져 불길을 퍼뜨렸다. 온 곳이 불바다였다. 반듯한 엄지손가락처럼 동그랗던 발전소의 지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발전소의 지붕 조각들은 근처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초소 앞의 나무들은 거의 불타고 있었다. 발전소 바로 뒤의 봉화산도 붉게 물들었다.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불꽃으로 인해 주위는 낮보다도 더 환했다. 어릴 적, 정월대보름 날에 달집을 태우던 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 폭발에 하늘 위로 떠오른 발전소의 지붕 조각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 수화기도 그렇게 손에서 떨어졌다. 수화기는 전선으로 연결된 전화기에 매달려 달랑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랑거리는 수화기까지 다시 전화기에 얹어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해.. 하고 마음을 먹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후끈한 바람이 몰아치며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다. 오늘은 일 년 중 제일 춥다고 하는 소한인데도 불구하고 열기 때문에 마치 한여름 피약별 아래 평상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어떡하지?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님 사람들을 도와 줘야 하나?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발전소는 계속 불타고 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우선 얼질러진 물부터 닦아내자는 생각에,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가 떨어져 달랑거리는 수화기를 다시 잡아들고 119

를 눌렀다. 오늘따라 신호음은 왜 이렇게 긴지...

‘고리지부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발전소인데 방금 전에 발전소가 갑자기 폭발해버려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막 시벨건 불길이 활활.. 지붕도 날아가 버렸어요. 빨리 좀 와 주이소... 안에 직원들 다 죽게 생겼구마.”

‘...고리 원자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다 카이. 최대한 빨리 와 주이소. 우리 다 죽게 생겼소.”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그 짧은 새에, 소방서 측에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긴 이 상황에서 누군들 태연하라. 지나가던 세 살배기 꼬마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터였다.

01시 28분.

에에에에엥-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방차가 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남아 있을까? 고민하는 새에, 소방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아 이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빨리 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제가 한 30분 전에 평소랑 똑같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암전하던 방사능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서 주제어실에 연락을 했더니 위험하다고 그냥 빨리 가서 나오라 해서 나와서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전소가 뺑 터져버렸네요.”

짧지만 굵은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소방차는 발전소 근처에 다다라 호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전소는 언제는 암전했냐는 듯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도, 폭발로 인한 열기로 목덜미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세요. 현재 상태로는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방사능은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날로 끝장입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뭐.. 제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솔직히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막아 봐야지요. 도와 드리고 싶어도 할아버지만 다치실 거예요..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침착함이 돋보이는 차분한 청년이다. 기껏해야 스물다섯 살 내지 스물일곱 살로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다.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죽으면 너무나도 아까운 청년인데 말이다.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방화복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청년을 보며 다시 고민에 휩싸였다. 정말 이대로 집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뭐라도 도와줄 것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려 보았다. 저 멀리에서는 소방차가 열심히 물을 뿌려댔지만 불은 좀체 잠적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물방울을 제 양식으로 받아들여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소방차도 너무 뜨거운 열기에 발전소 바로 앞으로 다가가

기는 힘들었는지 발전소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발전소가 폭발했고 그 안에 있던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서,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은 너무 커져버려 소방차에 있던 인원만으로는 좀체 진정될 것 같진 않다. 게다가 발전소 건물 안에 아직 직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또, 방금 마주쳤던 젊은 청년의 말마따나 방사능이 새어 나온다면 현재 불길을 제압하려 하는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의 몸에도 방사능이 들어가 병에 걸려 고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저들은 지금 같은 때에 목숨을 잃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 자전거를 타고 15분이나 걸리는 우리 집까지 방사능이 퍼질 리는 없다. 불뿔이 우리 집까지 튀는 것도 아니니 아내는 아직 안전하다. 그렇다면...

01시 31분.

뜨겁다. 더 이상 다가가지가 힘들다. 아직 소방차가 있는 곳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말이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그랬다면 좀더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기왕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이나 하다 가야겠다. 무거운 걸옷을 벗어 땅에 내려놓았다.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발전소를 향해 걸었다. 불은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되고 있었다.

“저기..”

아까 마주쳤던 젊은 청년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들리지 않는지 아예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쳐다보기는커녕 바쁘게 움직이며 다른

대원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소방차 안에서 산소탱크를 꺼내와 다른 곳에 놓아두기도 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소방관들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이쪽을 쳐다봐주지는 않았다. 나 혼자서라도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발전소 건물 쪽으로 더 가까이 뛰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고? 할아버지! 돌아오세요!”

뒤에서는 젊은 청년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한다. 내가 먼저 발견한 일이니 내가 끝을 보고 싶다.

소방차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과해 건물 가까이로 들어섰지만 너무 뜨거웠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일까? 정신도 이상해졌다. 누가 망치로 한 대 때린 듯이 머리가 멍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그윽한 연기에 숨이 막혀 기침을 하니 피가 나왔다. 웬 피지? 68년 인생을 살면서 피를 내뿜은 적은 처음이다. 손바닥에 내뿜은 피는 타오르는 불빛을 반사해 반짝반짝 빛났다. 마치 마지막 순간을 반짝거림으로 장식해주기라도 하듯이. 피로 얼룩진 손은 흉터가 난 것처럼 울그락불그락하다. 쭈글쭈글하기도 한 것 같다. 손바닥에 묻은 피를 바지에 얼추 닦아내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길은 어느새 번져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랗고 빨간 불은 부드럽지만, 사악하게 타올랐다. 어떡하노. 아무나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기는 너무 뜨겁다...

“오늘은 가지 말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말은 머릿속을 자꾸만 맴돈다. 머릿속에서 땀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철없던 어

릴 적 얼음 위에서 치던 팽이. 팽이의 꼭지가 머리 위로 떨어진다. 줍고 보니 그것은 팽이가 아닌 시멘트 조각이었다. 팽이들 어떡하고 시멘트 조각인들 어떡하랴. 난 이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집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다. 기침이 나오고, 다시 피가 나왔다. 불은 점점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주저앉아 앞으로 쓰러져 버렸다.

“오늘은 가지 말지..”

아내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안하오. 함께 가주지 못해서. 이렇게 먼저 가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어리석은 내 자신을 탓해야지..

몸이 따갑다.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 산소가 아닌 연기만이 코로 들어온다. 따갑다.. 아프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놈의 원자력발전소가 뭔지...

2014년 1월 5일, 1시 34분.